서효인의 '소설처럼'

작고 단호한 연대 -이유리 '왜가리 클럽'

소설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양미네 반찬'은 지난달 10일에 망했다." 우리가 아무리 '죽겠다'와 '망했다'를 입에 달고 사는 부정의 민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이 망하는 것은 말버릇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다. 주인공의 사업은 안타깝게도 지난달 10일 해당 관할 구청에 폐업신고를 했다.

처음부터 망할 기미나 징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개업 초기에는 장사도 꽤 잘되었다. 입지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다. 반찬도 열심히 만들었다. 이런저런 마케팅에도 힘썼다. 그러나 개업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매출은 하향 곡선을 그렸고, 점점 줄어들던 수입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내리막길이었다. 몇 달을 모아둔 돈을 까먹으며 버텼지만 더 이상은 버틸 재간이 없었다. 무리였다. 그렇게 양미네 반찬은 망해 버린 것이다.

소설의 제목은 '왜가리 클럽'이다. 신인 작가 이유리의 신작 단편이며, 최근에 출간된 신인 작가들의 신작 앤솔러지(Anthology, 작품집)의 표제작이기도 하다. 엄연히 허구의 이야기이건만 동네의 이런저런 가게들이 폐업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가혹한 기시감을 준다. 그전에도 치열한 경쟁의 복판에 내몰렸던 자영업은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기에 내몰렸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걸 막아야 한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장사가 잘될 리 없다. 천재지변에 가까운 난리로 영업은 되지 않지만, 임대료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꼬박꼬박 내야 한다. 국가적 방역은 많은 자영업자에게 어쩔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한다.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 버틸 재간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무리다. 그렇게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다.

주인공 '나'는 '가게가 망했다고 인생까지 망한 것이겠는가' 하며 낙관적 호기를 애써 품은 채 집 주변을 산책한다. 걸으면 좀 나아질까 싶기도 했지만 기실 별달리 할 일이 없기도 해서 그랬다. 그가 걷는 곳은 도심 하천의 산책로인데 곳곳에 왜가리가 있다. 왜가리는 기다란 부리로 사냥을 한다. 사냥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다. 가만 보면 실패하는 순간이 더 많은 듯도 하다.

사업에 망한 여자, 그의 천변 산책, 그리고 왜가리…. 소설은 이들을 엮어 새롭고 변화무쌍한 이야기의 흐름을 탈 수도 있었겠지만, 사냥하는 왜가리처럼 조금은 묵묵한 편을 택한다.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양미네 반찬은 여전히 망한 상태이고, 주말마다 왜가리를 관찰하는 여성들 또한 각자의 지난함과 지겨움을 지닌 이웃일 뿐이다. 그들은 그저 함께 걸으며 왜가리를 본다. 왜가리의 우아한 사냥에서 실패를 딛고 다음 발자국을 이어 나갈 용기를 얻는다.

실패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실패를 무릅쓰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실패함이, 망해 버림이 디폴트값(기본 값)이 되어 버린 시대다. 이런 시대에 죽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 마음이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욕망과 부동산·주식·가상화폐 같은 것들은 잘 어울리는 면이 있다.

어차피 실패할 것이라고, 심지어 실패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시민은 특히 청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보다 약하고 나와는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털끝만큼의 손해를 미치는 것들까지 찾아내 공정의 돋보기를 들이미는 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 아닐까. 하지만 그런 행동이 실패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왜가리 클럽'은 의외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왜가리를 닮을 것. 실패하든 성공하든 왜가리는 그저 그 일을 지속할 뿐이다. 실패에 주춤하거나 성공에 기뻐하지 않고, 그저 매번 잘 노려서 내리꽂을 뿐이다. 왜가리 클럽의 회원들은 왜가리를 통해 실패를 통과하는 법을 배운다. 서로의 실패를 고백하고, 그 실패를 극복한다. …… 이게 다가 아니다.

'왜가리 클럽'의 진짜 방점은 왜가리가 아닌 클럽에 있는 듯하다. 왜가리를 함께 보고 있는 클럽의 사람들. 무해한 손길을 내민 사람들의 조용하고 담백한 방식의 연대와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눈길을 마주보려는 노력이 왜가리와 같은 용기를 줄 것이었다. 그리하여 '왜가리 클럽'은 지금 여기의 연대 방식에 대해 말하는 소설이 된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서 꼭 읽어야 할 소설이라는 말과 같다. 〈시인〉

의료칼럼

방사선 사진은 왜 찍나요?

서요섭
조선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교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의 매체들은 방사선의 위해성에 대해 자주 알리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확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국내 여러 도시의 방사능 수치를 인터넷에서도 손쉽게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도 식품의 방사선을 측정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개인이 방사선 검출기를 구매해 사용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방사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방사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각종 매체를 통해 위험성을 알고 있다. 필자는 어린 시절 '달빛 가족'이란 드라마에 OST로 삽입된 '새끼손가락'이란 노래를 듣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네. 할아버지가 히로시마에 살고 계셨다네. 내 왼 손가락은 태어날 때부터 한 덩어리로 붙어 있었죠. 언제나 주머니 속에 숨어 있는 나의 왼손"이라는 슬픈 가사이다. 방사선 효과를 소재로 한 영화로는 '스파이더맨' '닌자거북이' '헐크' 등이 있고, '체르노빌 다이어리'처럼 공포심을 갖게 하는 영화도 있다.

방사선의 위해 효과는 피부 홍반, 백내장, 불임, 탈모 등의 확정적 영향과 암 발생, 유전적 영향 등의 확률적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확정적 영향은 방사선 피폭이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에 직접 영향을 주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역치를 넘어 피폭된 경우에는 선량이 커짐에 따라 손상의 정도도 증가한다. 확률적 영향은 신체에 조사된 방사선이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후 암을 발생시키거나 유전적 영향을 미칠 때 확률적인 우연성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량이 증가할수록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위험한 방사선을 왜 사용하는 것일까? 답은 필요해서 그렇다. 방사선 검사는 의료에 있어서 필수이다. 눈으로 보면 피부 표면밖에 볼 수 없지만 방사선 사진을 찍으면 몸 내부의 조직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숨겨진 질병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위험한 방사선을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는 방사선 방어를 위해 정당화, 방어 최적화, 선량 제한 등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정당화란 개인 또는 사회가 방사선 노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진단 정보가 방사선에 의해 야기되는 상해보다 충분히 커야 한다는 것이고, 방어 최적화는 방사선 노출은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최소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량 제한은 직업적인 방사선 노출이나 대중의 방사선 노출이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는 선량 제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정당화로 설명된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해보다 방사선 검사를 하는 이득이 더 크면 찍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가 받는 이득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방사선 사진은 왜 찍나요?" "찍으면 뭘 알 수 있나요?" "꼭 찍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은 환자의 이득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환자에게 방사선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에게는 불편해서 못 물어보고, 방사선 검사를 할 때에 "이거 왜 찍어요?"라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경우 검사한 의사가 아니면 대답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정보가 부족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 정말 몰라서 무언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은 검사한 의사가 아니면 해 줄 수 없다.

치과에서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량은 확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역치 선량에 훨씬 못 미치고 주로 머리와 목 부위를 촬영하므로 자궁 및 태아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선량이 적어서 방사선에 의한 발암 가능성도 매우 낮다. 그래서 바쁜 의사에게 물어보면 실례가 될 것 같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작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방사선 검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꼭 알아야 하지 않을까? 큰 수술을 받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또한 질문을 함으로써 의사가 환자의 질병과 예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해 줄 수도 있다.

기 고

한글날에 한글을 생각하는 이유

배동진
전 전남도 교육지원과장

한글은 소리글자로 문자를 만든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이다. 따라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뛰어난 글자다. 그런데도 신문·방송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일제 강점기 시절 강요당한 일본어는 물론 영어, 외국어가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 조직을 두고 관련 법률을 만들어 공문서 등에 한글을 쓰도록 하고, 언어의 특성상 한글을 고집할 수 없기에 외래어를 합리성 있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문별한 외국어 사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글은 1443년에 만들었으니 올해로 578년이 되었고, 반포한 지는 575년이 되었다. 세종대왕은 올바른 정치를 펴고,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갖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훈민정음)를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세종은 집현전이란 전담 기관을 두고,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해 신진 학자들을 투입했지만 관료 집단의 반대가 끈질기게 이어졌다. 자신을 비방한 한글 벽보 사건을 계기로 연산군은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허균 등 선각자들이 한글로 글을 썼고 백성들도 면면히 한글을 사용해 왔다.

조선 말기 외세가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던 시기에 자주의식을 함양하고, 백성을 교화해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독립협회 등이 한글 사용·보급에 앞장서면서 한글 사용이 대중화되었다. 그런데 훈민정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세종조에 '신미 대사를 궁궐로 불러 들여 극진히 대접했다'는 단 한 줄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필자는 우연히 '복천암실기'라는 책을 읽고서 한글 창제에 관해 소상히 알게 되었다. 당시 집현전 학사인 김수온은 속리산 복천암에 계셨던 자신의 형님인 신미 스님이 여러 나라 말을 잘 하기에 이를 세종에게 알렸고, 세종이 신미를 만나 임무를 부여했다. 세종은 신미가 서울의 흥천사, 대자암 등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그 덕분에 한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선은 태생적으로 불교를 억압했고, 스님들을 천민으로 격하하고 유교를 내세웠다. 따라서 훈민정음을 만든 주역이 신미, 학조, 학명 등 스님 천민들이니 양반 관료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만든 과정이나 만든 사람들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다. 훈민정음 제작에 참여한 이들은 집현전 학사들이 아니라 당시 세자였던 훗날 문종, 수양대군, 공주 등 왕족과 신미를 비롯한 학조, 학명 등 스님들이었다.

훈민정음 제작에 참여한 이들이 집현전, 정음청 등 양반 관료였다면 역사서에 당연히 훈민정음을 만든 과정, 만든 사람들을 밝혀 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박해하고, 천민 노예로 격하한 이들이 만든 훈민정음을 역사에 기록할 수 없었고, 한문 대신 훈민정음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양반 관료들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면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그들이 신성시하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유교 관련 책을 최우선으로 번역했을 것이나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 불교계 책을 번역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래 전에 그 역사적인 현장인 속리산 법천암을 찾아가 한글 창제 관련해 흔적이 있나 살펴 보았는데, 어느 곳에서도 짧막한 설명문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아쉬운 마음을 안고 산을 내려왔다. 훗날 영화 '나랏말싸미'가 상영됐고, 정찬주 소설가는 어느 날 속리산 법천암을 들렀을 때 주지스님으로부터 한글 창제에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천강에 비친 달'이라는 소설을 썼다.

문제는 정부나 국문학을 전공한 이들, 심지어 역사학자들도 이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을뿐더러 새롭게 드러나는 한글 제작에 관한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한글은 문자를 만든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문자로 소중하고 귀한 자산이다. 만일 한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 보곤 한다. 자기 자신의 말과 글자가 있다는 건 크나큰 축복이자 자랑이다.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한류 문화에도 한글이 기여한 바 적지 않으니 우리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社 說

유흥업소 '비밀 술판'이 방역망 흔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밤 10시 이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채 곳곳에서 벌어지는 '비밀 술판'이 방역망을 흔들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팀은 지난 4일 밤 광주 상무지구 유흥가를 둘러봤다. 곳곳에서 호객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물론 밤 10시가 넘어서면서 유흥업소 간판 조명은 대부분 꺼졌다. 하지만 호객꾼들이 행인에게 접근해 내밀히 영업장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부 업소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했다. 철문을 걸어 잠그고 CCTV를 통해 검증된 손님만 받는 곳도 있었다.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출입하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65명에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25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해 14명에서 올해 185명으로 열 배 넘게 증가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인용)

이처럼 불법 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업소에는 300만 원, 이용객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낮은 처벌 수위도 문제다. 이로 인해 '영업을 못해 망하느니 차라리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무는 게 낫다'거나 '단속에 걸린 곳만 운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최근 유흥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일부 업소들의 '배 째라'식 불법 영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두 번 세 번 적발된 업소는 가중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할 것이다.

골프장 횡포 방지 건의안까지 나온 까닭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자 국내 골프 인구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젊은 세대들이 새로 골프에 입문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골프장은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국내 259개 회원제 및 대중 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은 31.8%로, 지난 2019년보다 9.3% 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코로나로 특수를 누리면서도 서비스 질의 개선은 외면한 채 그린피(이용료)를 인상하거나 음식 값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대중 골프장인데도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수준을 넘어서는가 하면, 일부 골프장에서는 시중가 1000원대밖에 안 되는 막걸리 한 병을 1만2000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골프장의 횡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정부가 대중 골프장에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을 들어 대중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역전한 현상은 '해당 대중 골프장들이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남도의회 또한 최근 '골프장 갑질·횡포 방지 대책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까지 했다. 건의안은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유독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의 갑질·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제도적 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골프장 이용 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정부 차원의 통제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앞으로 많은 골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과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생활한복

세대 차이를 느끼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나는 1983년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교복을 입은 세대다. 50대 이상의 남성이라면 모두 노란색 양철 단추를 단 '검정 교복'을 입었을 터다. 반면 동년배 여학생들의 교복은 좀 더 다채로웠다. 그래서 교복을 보면 어느 학교 여학생인지 알 수 있었다. 요즘에는 여학생들이 교복을 이렇게 저렇게 고쳐 입느라 여념이 없는 듯하다.

강진 작천중 학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복 교복을 입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복진흥원센터가 추진하는 '한복 교복 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학부모·학생 및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고유정 디자이너가 제작한 교복으로, 양장의 기본 틀에 깃·동정·고름 등 한복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했다. 편하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올해 한복 보급 시범 사업에서는 순천 신흥중 등 전국에서 19개 학교가 선정됐다.

한때 개량한복이라고 불렸던 생활한복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한복진흥원센터는 올해부터 한복 근무복도 보급 중이며 우선적으로 문화예술 분야 근무복을 개발하고 관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시청, 국립 부산국악원 등 10개 기관이 한복 근무복 도입 의사를 밝혔다. 첫 번째 한복 근무복 도입기관으로 참여한 국립한글박물관이 한글날을 맞아 최근 선보인 근무복은 세련된 디자인과 차분한 색감이 어우러져 인상적이다. 지난여름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개회식에서는 분홍빛 저고리와 대님바지, 호랑이 문양과 금빛 동정으로 구성된 생활 한복 선수단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복은 K팝 스타들이 입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2018년 '아이돌' 뮤직비디오에 한복을 입고 등장한 BTS는 지난해 미국 NBC '지미팰런 쇼' 출연 당시에도 한복 패션을 선보였다. BTS 멤버 슈 역시 지난해 발표한 솔로곡 '대취타'에서 한복을 입었다.

특별한 날에나 입는 옷으로 인식돼 우리 삶에서 멀어진 한복이 다양한 형태로 다시 뜨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